

ESG 경영은 특별활동이 아닌

새로운 경영원리이다.

2023. 11. 30.

Profile



박원일

Park Wonil

✉ onedib@naver.com

📞 010-8384-0144

📝 <https://blog.naver.com/onedib>

📖 “대기업은 협력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집필

학력

한양대대학원 경영컨설팅학 석사

경력

한전 kps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자격증

경영지도사 / 창업지도사 / 기술창업지도사 / 수질환경기사 / 온실가스관리기사

ISO 9001 / 140001 / 450001 / 37001 심사원(보)

프로젝트

중소기업 진단 및 대출(7년 담당)

- 약 1,300회 수행

스타트업 교육 및 코칭(3년 담당)

- 중진공 프리스쿨 기획 / 운영
-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육 및 코칭 총괄

ESG

- 산업통상자원부 지속가능경영 확산사업 참여('22~)
- K-ESG 등 ESG 정책연구 및 수립 참여
- 기아, 롯데쇼핑, 한세에스24그룹, BPA 등 전략 및 정책 수립
- GS그룹, 기아, 포스코에너지, BPA 등 보고서 개발 및 DJSI, KCGS, K-EGS 등 국내외 ESG평가 대응
- 쿠팡, 롯데쇼핑 등 기업 공급망 ESG 진단 및 실사
- 쿠팡, 롯데쇼핑, 삼성SDS 등 대기업 기후변화컨설팅(SCOPE3 산정 등)
- 언더독스 참여 스타트업 및 공공기관 보고서, 전략 수립 및 수준진단
- S사, H사, L사 및 K사 공급망 실사 대응 및 컨설팅 10회
- ESG 진단(수용성진단 등) 3단계 완료 → 적용 기업 40개 사



발표 순서

- 1 ESG 경영에 대한 이해
- 2 ESG 경영 관리의 필요성
- 3 최근 기사 분석

PART 1. ESG경영에 대한 이해

1. (다른 시각) ESG 논의 확산

ESG는 도덕적 헤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 방지에서 시작

이 부분을 수치화하여 확인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

- 1992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채택
- 1997
 - GRI GHG Protocol
 - 교토의정서 채택
- 2000 엔론사태
 - 2000년 매출 100조 미국 제 7위 대기업
 - 매출 분식회계
 - 2001년 파산/부채 130억달러/ 4,500명 일자리 잃음
- 2001 월드컴사태
 - 38억 달러 회계부정
 - ceo의 횡령(4억달러)
- 2002 사베인스 옥슬리법
- 2005 ESG등장
 - 상장회사의 회계 개선 및 투자자 보호
 - 내부통제 강화
 - 처벌 강화
- 2014 RE100 시작
- 2015
 - TCFD 파리협정 채택: 2016부터 발효
- 2019 EU, 2050년 Net-Zero선언
- 2020 SK, 국내 최초 RE100가입 선언
- 2022 EU 공급망실사지침(안) 발표

다보스 매니페스토 비교

다보스 성명 I (1973) → 다보스 성명 II (2020)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윤리강령

전문경영의 목적은 이해관계자의 서로 다른 관심사를 조화시키는 것

주주자본주의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보편적인 '기업의 목적'

기업의 목적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유하는 지속적인 가치 창출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

회사는 경제 단위 이상이다.
회사의 성과는 주주수익률 뿐만 아니라 ESG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측정되어야 한다.

다보스 포럼 위의 흐름을 통해 자본주의 본질에 대한 재고민

▶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이해관계자

ESG 의 2가지 토픽

- (가시적 측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가속화
- (철학적 시대적 사고 측면) 자본주의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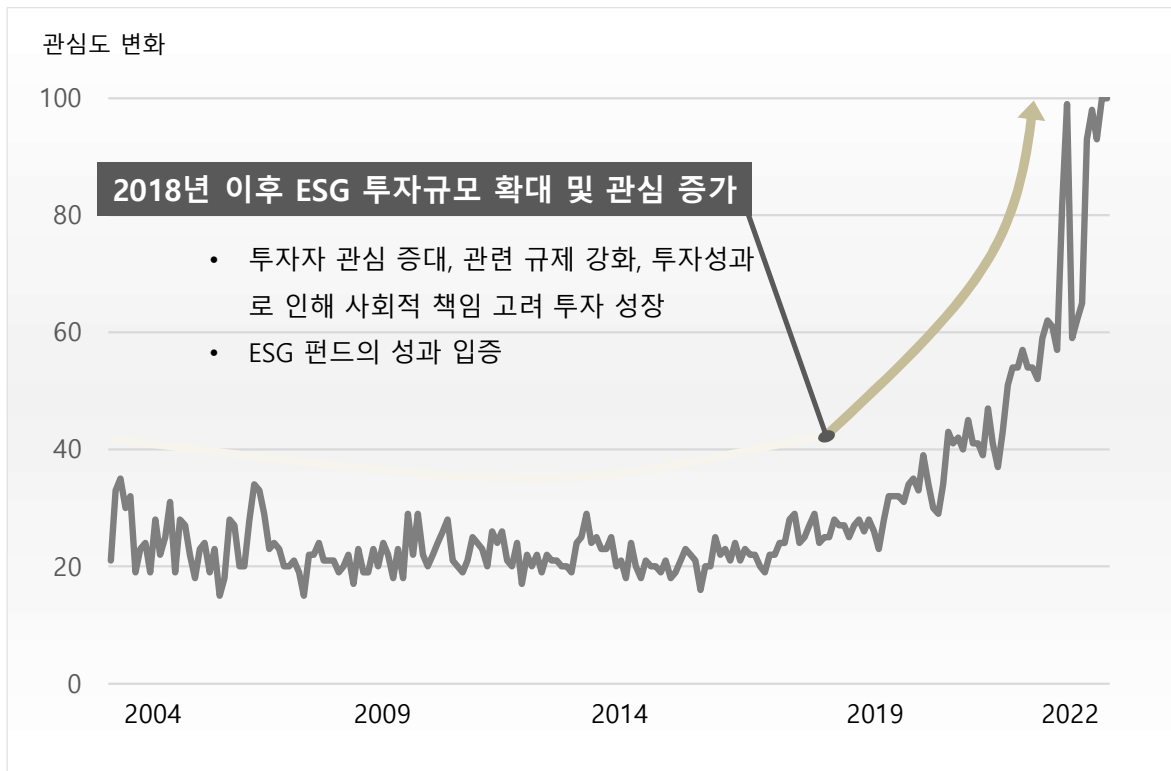
참고.

지속가능성 공시에 따른 소비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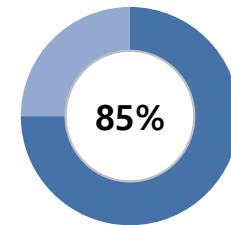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기업·서비스의 선택을 위하여 기업의 ESG관련 공시를 적극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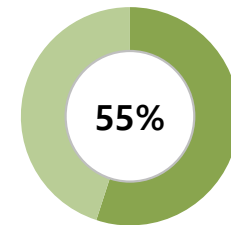
지속가능성 관련 Google 키워드 검색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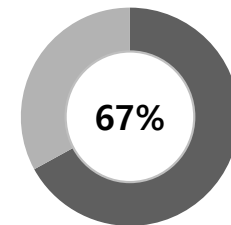
기업·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따른 소비심리



- 85%의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이슈를 고려하는 기업·제품을 더욱 선호함



- 55%의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기업의 제품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음



- 67%의 소비자가 사회적 가치·지속가능성에 반하는 기업·제품 구매를 고려하지 않음

- ❖ 소비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의 ESG 정보 접근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 ❖ 투자자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활동·목표 제시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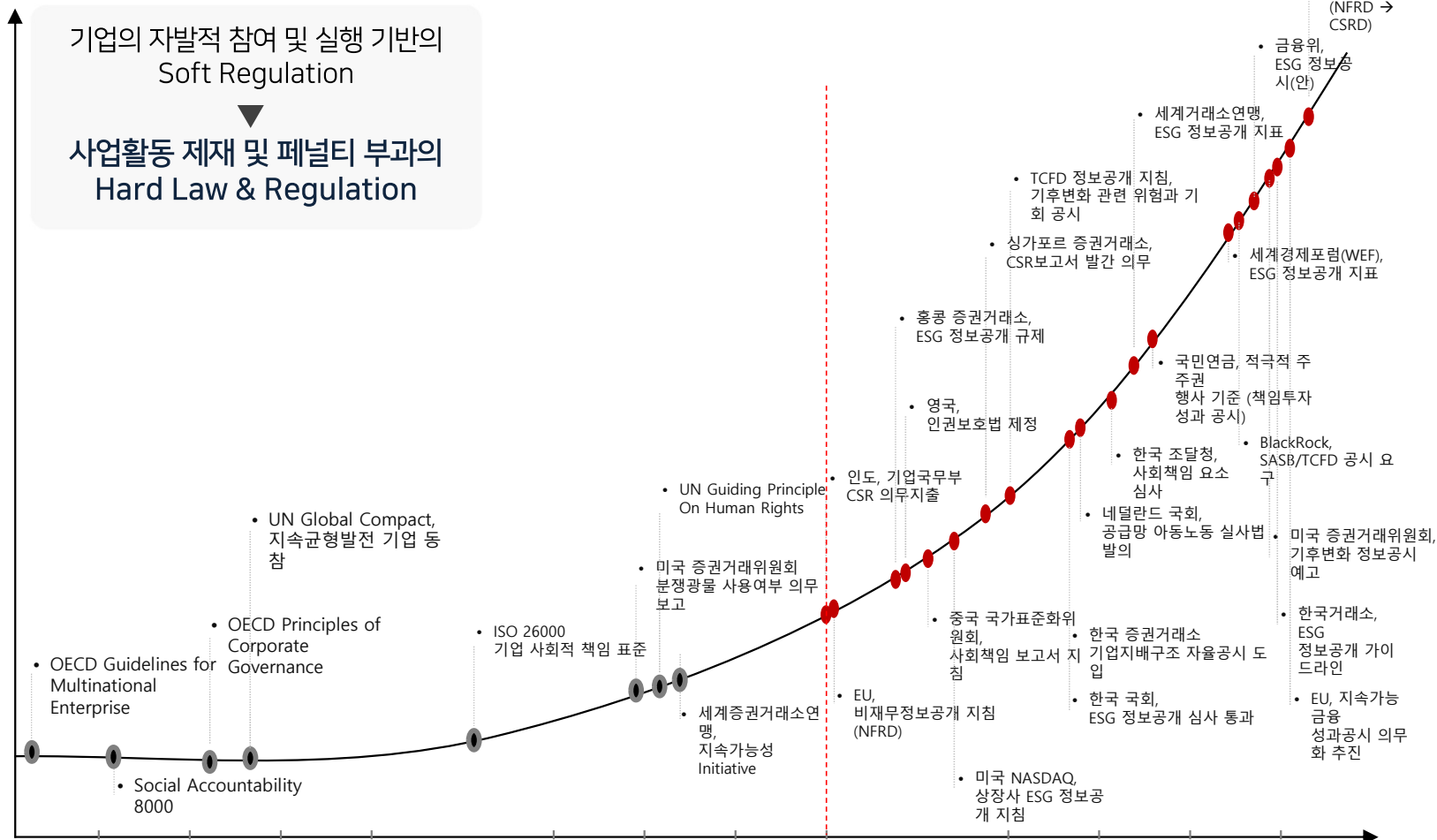
PART 2. ESG경영 관리 필요성

ESG 논의 변천

ESG 관련 법/규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 및 실행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사업운영 활동과 행위를 강제하거나, 관련 정보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중임

글로벌 ESG 논의 동향



ESG 논의 발전

1 ESG 추진 자율 규제

- ESG 실행 표준 등장 → 조직 자율 준수
- 사후 관리 집중한 최소한 이슈 대응 활동
- ESG 관리에 대한 조직 내부 보상 불확실

2 산업별 ESG 행위 규제

- ESG 성과를 기업간 거래조건으로 활용
- ESG 이슈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 기업별 ESG 리스크 Target 및 KPI 설정

3 ESG 정보공개 규제

- ESG 정보 필요성 강조
 - 의무/자율 제도화
- 조직의 R&R 정의
 - 정보공개 양적 확대
- 전략적 정보공개 vs Green Washing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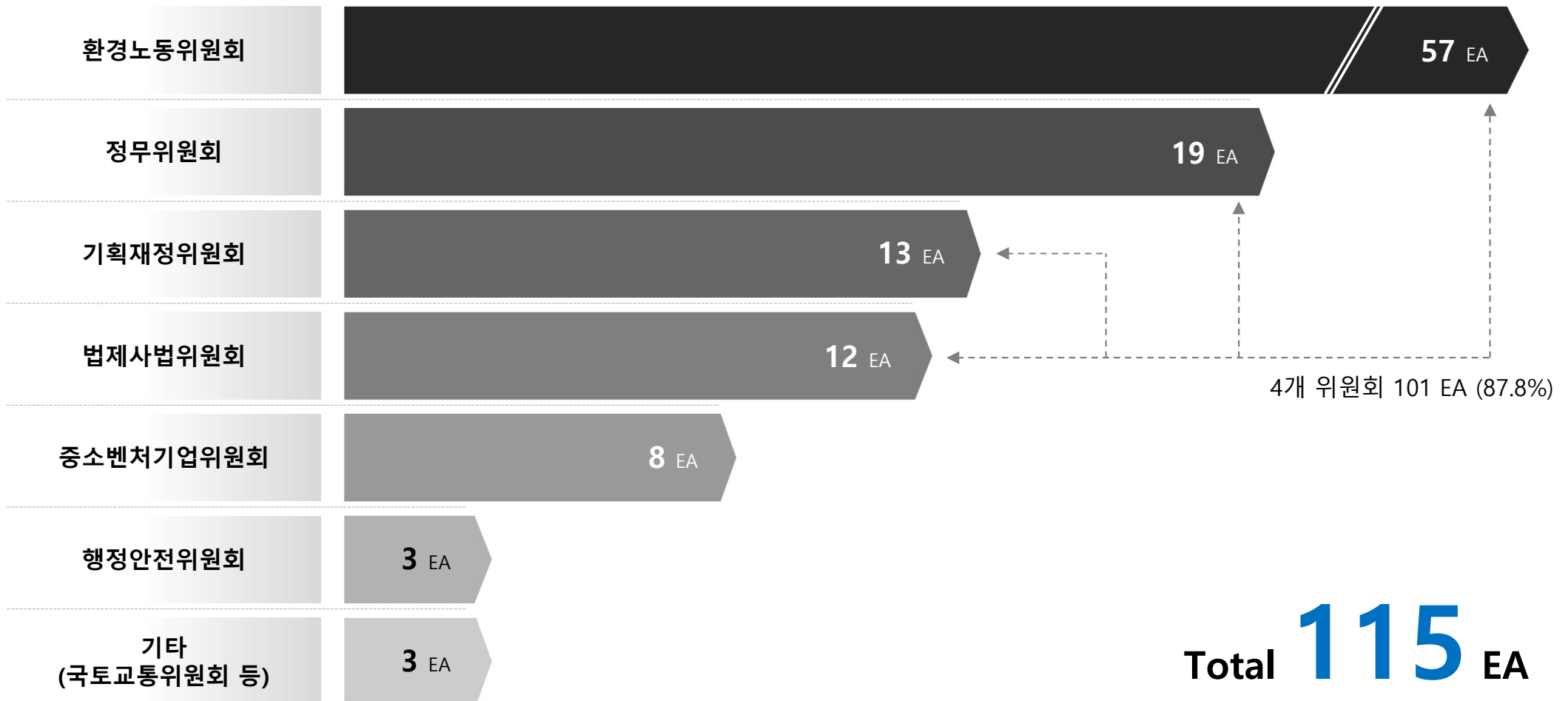
참고.

국내 ESG 법안 발의 증가

21대 국회 출범 이후('20. 06 ~ '21. 03) ESG 관련 법안은 총 115건 →

환경위 57건, 정무위 19건, 기재위 13건, 법사위 12건, 중소위 8건, 행안위 3건, 기타(국토위 등) 3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

ESG 관심 확대로 법제화 움직임 증가 → 논의가 가속화되는 법안 선제 대응 및 향후 법제화 방향성 예측 必



동반성장과 공급망 ESG의 차이

동반성장

배경

'사회적 책임' 관점으로 발전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중소 협력회사의 성장 지원

Biz. Case

기술지원 (R&D 등)

금융지원 (기금, 특별보증)

마케팅지원 (박람회, 해외진출 등)

공급망 ESG

배경

'위험관리' 관점으로 발전

공급망 내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 이슈가
부정적 영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Biz. Case

협력사 ESG 평가

협력사 ESG 컨설팅 (규제 대응 교육 등)

ESG 이행 확산 (계약 시 평가결과 반영 등)

ESG 경영 전략화

(국내)

코스피 상장사 30년까지 ESG 공시 의무화, 자본시장법* 발의

* 국내 기업 일정 규모는 E.S.G를 사업보고서와 함께 공시 의무화

(해외)

EU ESG 공시 의무화(24년), 미국 SEC SCOPE3 공시 의무화(24년)



GM은 모두가 참여하는 비전을 가지고 완전 전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GM을 넘어 공급업체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공급업체의 약속이 있어야만 제로 충돌, 제로 배출 및 제로 혼잡이라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공급업체가 지구를 보호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하여 2021년에 우리는 General Motors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파트너십 서약에서 Tier 1 공급업체를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ESG 파트너십 서약은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주제와 관련된 약속에 중점을 두고 전체적인 방식으로 가치 가능성을 수용합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의 가치를 약속하는 공급업체는 ESG 목표와 전략적 전반면의 대내·대외 영향을 줄이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급업체는 EcoVadis 인권, 윤리 및 지속 가능한 조달 기준에서 최소 50 점을 획득하여 단기 결과를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환정 기종의 경우 공급업체가 GM에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에 대해 탄소 중립을 약속할 것을 공급업체에 요청합니다. 공급업체가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일정은 오른쪽에 나열된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GM은 현실적이면서도 야심 찬 글라이드 패스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각 공급업체 산업을 대해 나열된 탄소 중립 날짜를 선택했습니다.

** GM : 25년까지 Tier1사 필수 옆은 GM홈페이지 공개된 내용

[illegible]

* 위의 증빙서류는 관련 설문 답변 시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현재차 : 73페이지 질문 항목(100 여개) 옆은 준비 서류 예시 (이러한 공급망 실사는
전방기업의 (재무)비용 리스크 증가 → GM과 동일한 예코바디스 점수 공개 요청하는 공문
발송(일부 2차 협력사까지))

EU, ESRS 수정안 공개...ISSB 기준과 '상호운영성' 고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최근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의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기업의 ESG 정보 공시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기준과의 상호연성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일부 공시 항목을 자발적 공시로 변경하는 내용과 중요도 평가를 거쳐야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 750명 미만 중소기업의 스코프3 공시 유예, 생물다양성 전환 계획 등도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번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ESG 투자기관 등이 이번 수정안에 반발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들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가 줄어들어 기업의 ESG 정보가 더욱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EU와 IFRS재단이 상호 운영성 고려 한다는 말은
사업보고서 형태로 표준화 및 일반화 가능 이 전에 마케팅 효과
극대화하여 활용 필요

PART 3. 최근 기사 분석

미국인권경영 강화에 초점 맞춘 ESG 규제

바이든 정부 21년 통상 정책의제 발표 당시 노동, 인권, 기후변화 강조했으나, 23년 경기침체, 아동착취 등 문제로 인해

ESG 개념을 통한 노동, 인권 규제 강화를 통한 기후변화 규제(최소화) 가능성 높음

미국 뉘혼든 아동노동 스캔들

송선우 editor | © 입력 2023.03.16 09:20 | © 수정 2023.03.17 07:05 | 댓글 0



미국의 아동노동 문제를 집중 조명한 뉴욕타임즈/ NYT



Hyundai Motor Releases Details of Supplier Investigations

February 23, 2023

Dear esteemed shareholders,

On behalf of Hyundai Motor Company, we would like to extend our heartfelt gratitude for your continuous support and interest. Maintaining trust and enhancing transparency to you is our utmost objective. We would thus like to reassure the investment community through this letter that HMC does not tolerate any form of unlawful employment.

Hyundai is implementing new, more stringent workforce standards throughout its supply chain following an investigation into supplier labor practices after discovering two Alabama suppliers had each employed an underage worker. The investigation found that Hyundai's U.S. tier one suppliers were in full compliance with underage labor laws. As a result, Hyundai is confident there are no current underage labor issues at these suppliers. An executive summary of the investigation can be read [here](#).

출처=현대뉴스닷컴 갈무리

한편, 현대자동차는 아동 노동 착취 문제로 연방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미국 앨라배마 공장 납품 자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즈 조사 [해당기업 : 유니레버 / 포드 / 제너럴 모터스 / 월마트 / 아마존 등]

22-23년 간 25만 명 아동 입국 → 밀입국 비용 지불 → 도축장, 건설현장 등 취업 불가 직종에 취업
▶ 미하원 공화당 보건복지부 아동 보호 법안 논의

(보도 이후)
인권 강화 공급망 실사
→ 계약 종료

(펍시코)
'깊은우려' 표명 → 공급 업체
미성년 근로자 고용 금지 발표

(아마존 홀푸드)
조사 착수

(현대차)
자회사 매각 초강수

(바이든 행정부)
이민 심사 강화, 벌금 강화

ESG 이슈와 금융위원회 유예 결정에 대하여

- 최근 몇년 동안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기업 경영의 핵심 주제로 떠오르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이러한 ESG 움직임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투자자들 역시 ESG 기준을 중요한 투자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통해 기업의 준비 부족 및 주요국 ESG 공시 일정 연기 등을 이유로 공시 의무화를 1년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ESG 이슈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ESG 공시 의무화, 1년 유예

현재 금융위원회는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시 의무화를 25년에서 26년으로 유예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에 'ESG 금융 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하며,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확정했으며, 로드맵은 지속 논의하기로 함

금융위원회의 해명

- 금융위원회는 16일에 '**ESG 금융 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하여 1년 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 현재 금융위원회는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해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향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여야 할 것

- ✓ 중요한 것은 전방기업 및 수출 국가에 대한 맞춤 대응에 주력
- ✓ 전방기업과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기울이기

- ✓ 중소기업은 변동성에 휘둘릴 필요 X
- ✓ 너무 넓은 범위를 생각할 필요 X
- ✓ 원론적인 논의에 사로잡힐 필요 X



ESG 지표 C레벨 보상



FINANCIAL TIMES

myFT

Executive Pay + Add to myFT

Investors warn 'fluffy' ESG metrics are being gamed to boost bonu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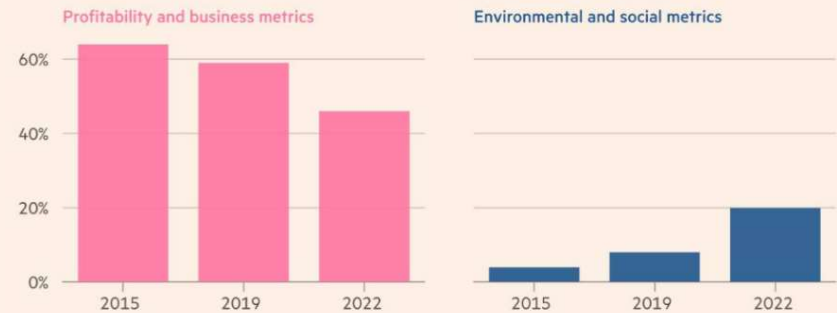
Majority of S&P 500 companies use environmental, social or governance criteria to guide pay



Southwest Airlines boosted its chief executive's pay last year despite cancelling thousands of flights © Robyn Beck/AFP/Getty Images

ESG is becoming a more important part of determining executive pay

Per cent of metrics used to determine executive pay plans, according to company filings from 2015, 2019, and 2022



Source: ISS ESG Global Executive Compensation Analytics dataset • 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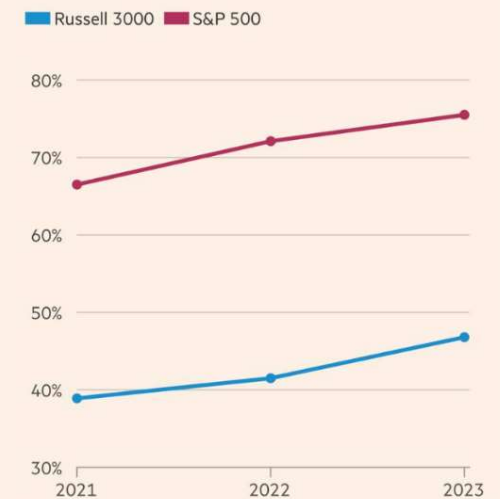
graphic: Eva Xiao

Note: 13,500 global companies are included in this dataset

FINANCIAL TIMES

ESG metrics are increasingly part of company incentive plans

Per cent of Russell 3000 and S&P 500 companies with at least one ESG metric in their incentive plan, according to SEC filings 2021 to 2023



FT 금융 매체의 보고서

대부분 S&P 500 기업들이 EPS 지표와 함께 ESG 지표를 보상 결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가 '허상'으로 작용해 보상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15년 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 분석

경영자 보상 결정에 사용되는 지표 중 40%가 ESG 지표라고 합니다. ESG 지표 활용이 점점 늘고 있으며 이는 기업 평가와 투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 보고서에 따른 통계

Russell 3000 기업 중 2023년에는 80%가 ESG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S&P 500 rldjq wnddptjeh 2023년에는 70%가 ESG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SG 기사 관점 정리

공시는 필수이나, 이에 대한 내용은 자율성이 강화되며, 이해관계자를 이해시키는 등의 활동의 효과는 기업이 리스크를 갖고 가는 것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형태는 유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공시" 및 "자체적"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자율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

#EU의 ERS변경 #공시기업 중대성 자체평가 #항목 및 내용 자체적 결정 가능

SSB는 GRI 및 ERS와 다르게 단일 중대성 평가이나 중대성 평가라는 형태는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판단에 맞기는 형태로 EU의 ERS와 공시 형태가 조금 다를 뿐 맥락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발적이라는 말이 중요하며, 자발적 판단에 맞기는 형태로 EU와 ERS와 공시 형태가 조금 다른 뿐 맥락은 같다.

#공시 의무화로 지배구조 역할 중요 #효율성 및 공정성 강화
#SSB는 GRI 및 ERS와 다르게 단일 중대성 평가하나 중대성 평가의 형태는 동일

오히려 국내는 강화하기 어려워서 연기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국내 기업이 따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는 강화하기 어려워 연기하는 형태로 국내 기업이 따라가기 어렵다고 판단

#국내기업 연기

점수화를 하지 않을 뿐이지 분석 내용을 게시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게는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갈 확률이 높습니다.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24년 이후 ESG 경영에 대한 어려움에 놓이게 될 것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24년 이후 ESG 경영에 대한 어려움에 놓이게 될것

#분석 내용게시는 기업에게 더 큰 위협 #대기업은 자연스러운 ESG 경영 진행
#기반이 없으면 불가능한 형태 #공급망 관리 리스크는 중소기업에 전가

기업이 절대 목적인 주주의 이익을 강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형태

무역장벽으로 활용되는 ESG 경영 공시

에너지Biz 전기경제 시공·안전 지면보기

고출력 업파워링

원료·부품까지 인권·환경 점검 의무
화... '공급망 ESG' 발등의 불

유럽의회, 핵심원자재법
(CRMA) 승인으로 입장 확정

유럽에서 ESG 경영 공시를 통해 기업들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시가 무역 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판 보고... "무역회사도 대응 준비 필요"

유럽의회, 핵심원자재법(CRMA) 승인으로 입장 확정

#핵심원자재법(CRMA) 승인
#광물수입의존도 낮추고 지속가능한 생산 강조
#광물 생산 EU내 확대&재활용 촉진
#중요 원자재 알루미늄 목록추가
#EU내 가공비율 50% 상향 조정

프랑스와 독일, 공급망 실사법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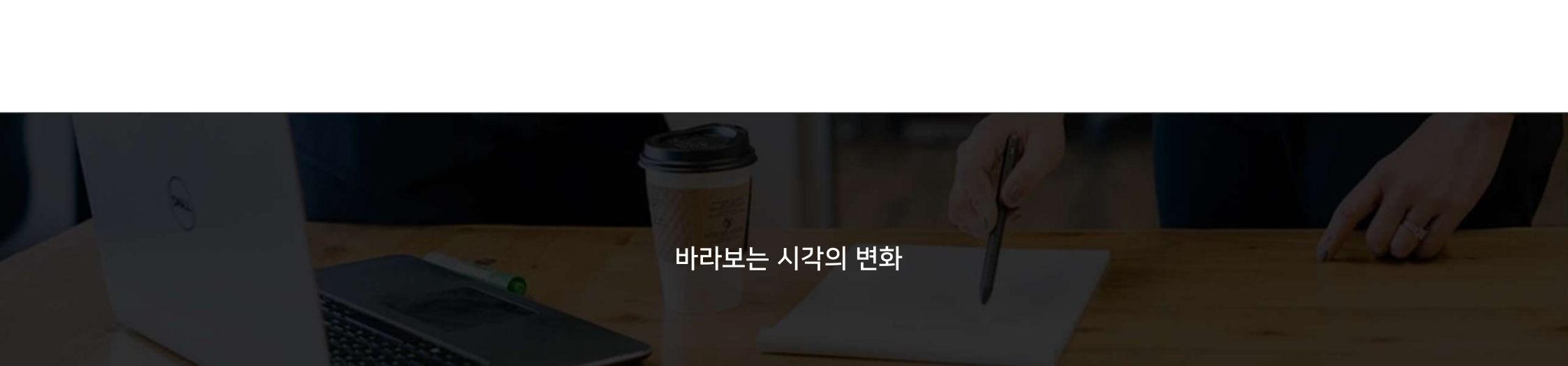
#주요 국가는 공급망 실사법 도입
#기업이 인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 강조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이슈에 대한 공개와 관리 의무화
#중요 원자재 의존도 낮추는데 초점

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 도입

#기업들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탄소배출량 감소, 탄소중립 달성 노력
#기업 CBAM 요구사항 준수

중소기업 선행과제

- ✓ CBAM과 스코프3 정책에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 없음
- ✓ ESG 경영 공시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인식 개선을 선행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변화양상

정량화

비재무적 요인인 ESG가
결국 재무적 요인과 같이 정량화

트렌드 변화

돈의 흐름에 맞춰
ESG 트렌드 변화

ESG경영 의존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ESG 경영 의존도 감소 등은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 ▲

ESG

E,S,G는 독립적 요소로 보이나,

E-G

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밀접한 관계

S-G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계성과
밀접한 관계

E-S

페이퍼리스 등의 활동으로 인해
내부 이해관계자의 운영 방식과 관계



THANK YOU

ESG 경영은 새로운 경영원리이다.

